

[121] 임상언(林尙彦)<李朝 ? ~ ? >

字는 光仲, 號는 道山, 本貫은 平澤, 梅軒 錫周의 孫子이다. 文學이 高明하고 詩賦를 잘 하였다. 英祖朝에 벼슬이 嘉善大夫 同中樞에 이르고 91歲에 長壽를 하였다. 詩集이 남아있으며 墓所는 禮山郡 花山에 있다. <朝鮮 輿勝覽>

[122] 임징하(任徵夏)<李朝 ? ~ ? >

字는 聖能, 號는 西齋, 本貫은 川, 名臣 弘望의 孫子이다. 肅宗朝에 文科及第하여 掌令이 되었고, 英祖朝에 辛壬義理로서 萬信疏를 陳情하여 庚戌年에 禍를 입었다. 吏曹判書에 追贈되고 諡號는 忠憲公이라 했다. 獨醒社에 配享되었다. <朝鮮 輿勝覽>

[123] 이백록(李百祿)<李朝 ? ~ ? >

字는 成之, 號는 楓巖, 本貫은 德水, 參議 의 아들이다. 行檢이 있으므로 參奉과 奉事에 薦授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己卯名賢錄]에 事績이 나타나 있다. <新定牙州誌>

[124] 정지승(鄭之升)<李朝 ? ~ ? >

李朝時代의 學者, 號는 叢桂堂, 本貫은 溫陽이며 牙山人이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學問에 힘썼다. 文集과 行狀이 있다. <輿地圖書(牙山縣)>

[125] 민기수(閔 壽)<李朝 ? ~ ? >

處士, 參奉 弘俊의 아들이다. 浦渚, 潛治, 朴知性에게 學問을 배우고 義理를 講磨하면서도 聞達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鄉黨에서 그 行義에 感服하였다고 한다. <輿地圖書(新昌縣)>

[126] 홍우정(洪宇定)<李朝 ? ~ ? >

字는 天光, 號는 社谷, 本貫은 南陽, 晩全의 孫子이다. 國事가 어지럽게 됨을 보고 世務를 버리고 物外에 放浪하였다. 여러차례 벼슬을 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晩年에는 奉化에 僑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詩를 지었다.

大明天下에 집없는 나그네가 (大明天下無家客)

太白山 속에 머리를 기른 중이 되었네. (太白山中有髮僧)

그 後에 子孫들은 嶺南 사람이 되었다. <新定牙州誌>

[127] 홍 기(洪覲)<李朝 ? ~ ? >

字는 彦明, 本貫은 南陽, 晩全의 會孫이다. 聰明이 過人하여 經學에 精博하였고, 丙午年에 文科 及第하여 官은 正郎에 이르고 號는 藏掘이라 했다. 文正公 宋時烈과 文忠公 閔鼎重이 서로 그 才能을 薦舉하였다. 그 때에 朝廷에서 局을 設置하여 經書中에 疑字와 誤字를 校正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覲에게 오로지 맡겨서 數年만에 끝을 내었다. <新定牙州誌>

[128] 정준호(鄭俊好)<李朝 ? ~ ? >

字는 德秀, 號는 湖岩, 本貫은 溫陽, 吏判 袍의 后裔이다. 少時부터 學問을 좋아하고 莊嚴端雅하여 德行과 文辭가 湖左地方에 이름나게 되었다. 孝道하고 友愛하며 敦睦하여 鄉里에서 모두 稱讚하게 되었다. 墓所는 牙山郡 仁州面 元應峙에 있다. <朝鮮 輿勝覽>

[129] 이문우(李文宇)<李朝 ? ~ ? >

字는 公七, 號는 華菴, 本貫은 全州, 大司憲 忠正公 松郊榮의 后裔이다. 經書에 밝으며 行實을 修養하여 自身の 法度を 端正하고 嚴하게 지키며 孝道하고 友愛하며 篤信하였다. 公州에 赴任하여 나가 있다가 마침내 孝道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집에 돌아와서 科擧準備를 廢하고 날마다 [蓼莪] 篇을 朗誦하였고 疾病이 甚할지라도 오히려 「昊天罔極」의 句를 朗誦하여 목이 메었다고 한다.

墓所는 牙山郡 鹽峙面 中方里에 있다. <朝鮮 輿勝覽>

[130] 정덕호(鄭德好)<李朝 ? ~ ? >

字는 致寬, 號는 翠松, 本貫은 溫陽, 吏判 袍의 俊裔이다. 文章과 行義가 있었고 節介가 높았다. 벼슬은 同敦寧을 지냈다. <朝鮮 輿勝覽>

[131] 허 숙(許 塾)<李朝 ? ~ ? >

字는 景學, 號는 山, 本貫은 陽川, 陽川君 亨孫의 後裔이다. 學問이 篤實하여 世上에서 推重하였다. 牙山郡 仁州面 海岩里에 그의 墓가 있다. <朝鮮 輿勝覽>

[132] 맹계회(孟繼會)<李朝 ? ~ ? >

本貫은 新昌, 名臣 思誠의 後孫이다. 文章과 學問이 뛰어 났고 벼슬은 世子洗馬를 歷任했다. 후에 工曹參判에 贈職되고 新原君에 封함을 받았다. <朝鮮 輿勝覽>

[133] 이장현(李容鉉)<李朝 ? ~ ? >

字는 用九, 號는 盤溪, 本貫은 禮安, 巍巖 李柬의 孫子이다. 벼슬은 經筵特進官으로서 父親을 위하여 千里길을 달려가 賊을 斬하였다. 亂이 平定되매, 巡撫營에서 褒賞하여 主君을 狀啓하니, 功券을 下賜하여 表彰하였다. <朝鮮 輿勝覽>

[134] 이건위(李建胃)<李朝 ? ~ ? >

字는 季卓, 號는 病 , 本貫은 禮安, 巍巖 柬의 孫子이다. 經學으로 薦擧되어 白衣로 入待하였으며, 監役에 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후 여러차례 부름을 받아 入待하였으나 벼슬은 廣興倉守에 그쳤다. 至極한 孝誠으로 父母를 섬기었다. <朝鮮 輿勝覽>

[135] 이장현(李章鉉)<李朝 ? ~ ? >

字는 惇五, 號는 樵隱, 本貫은 禮安, 巍巖 柬의 會孫이다. 마음을 기울여 참되게 學問을 익혀 家庭에 傳習시켰다. 文學으로써 고을의 推薦을 받아 晩年에 松木에 除授되었으나 곧 亂任하였으며 清白하고 孝道하며, 友愛와 德行이 있어 士友의 推重하는바 되었다. 守宗齋 宋達洙가 그의 行狀을 지었다. <朝鮮 輿勝覽>

[136] 이강열(李綱烈)<李朝 ? ~ ? >

號는 雲石, 本貫은 禮安, 巍巖 李柬의 后裔인데 文, 學, 行, 誼로서 名望이 있었으며 進士試에 合格하였다. <朝鮮 輿勝覽>

[137] 송 전(宋銓)<李朝 ? ~ ? >

本貫은 礪山, 兵使重器의 孫子인데, 일찌기 牙山에 退居하였으므로 後孫들이 살게 되었다. 戶曹判書로 贈職되었고 墓所는 牙山郡 仁面 牙山里에 있다. <朝鮮 輿勝覽>

[138] 이종덕(李鍾惠)<李朝 ? ~ ? >

字는 晦授, 號는 蒼白軒, 本貫은 完山, 雙 堂 端錫의 后裔이다. 洪梅山の 門人으로서 學問과 經術이 士友들의 推重하는 바 되었고, 全齋 任憲晦와 더불어 道義로서 사귀었다. <朝鮮 輿勝覽>

[139] 박관덕(朴觀德)<李朝 ? ~ ? >

字는 嘉會, 號는 西園, 本貫은 咸陽, 司馬 義和의 아들이다. 詩賦에 뛰어나 여러차례 鄉試에 合格했으나, 一命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布衣로 끝나치니 士友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朝鮮 輿勝覽>

[140] 박재상(朴在三)<李朝 ? ~ ? >

字는 君實, 號는 晝隱, 觀德의 아들이다. 집이 가난했으나 學問을 좋아했고 營利를 求하지 않으니, 鄉黨에서 '今世의 邵南'이라고 그를 일컬었다. <朝鮮 輿勝覽>

[141] 김종학(金鍾學)<李朝 ? ~ ? >

字는 學卿, 號는 竹軒, 本貫은 金海, 忠簡公 普의 后裔이다. 文章이 博雅하고 德行이 純至하여 德을 숨기고 버슬을 하지 않았다. 自然속에서 老父母를 奉養하면서 後學을 勸獎하니 온 고장의 사람이 推仰하였다. <朝鮮 輿勝覽>